

11, 12월 회비 납부해 주신 분들

박영리	김남익	김미리	김성열	김원균	김종현	김해숙	나승철	문태석	박서영	박찬숙	서미화	송주석	양세혁	윤창한	이선행	이현준	정정희	정은숙	조예린	차동호	최철호	황성준	
장경수	곽영송	김남중	김미애	김성진	김유미	김종형	김현수	나화주	문태석	박성환	박찬숙	서민용	송지훈	양재원	윤철중	이수현	이현준	정정희	정재중	조예린	차중현	최철호	황성준
장관중	곽정연	김대성	김미영	김숙자	김유선	김종호	김현수	남정원	문화찬	박소은	박창서	서병근	송진근	양정민	윤철호	이수현	이 훈	전철희	정정단	조윤옥	채영숙	추인준	황성준
장대영	구동현	김대용	김미진	김숙희	김유선	김종훈	김형균	남선희	박가영	박수진	박창서	서성진	신광준	양준석	윤형혁	이승로	이 훈	전태식	정종엽	조천래	채영숙	하미미	황요순
장명호	구동현	김대우	김민철	김준태	김영철	남정원	김경근	박신숙	박철호	신남규	양진서	이강재	이승우	임서희	정형성	정찬순	조현구	천상국	하용식	황지호			
장성근	구계혁	김병주	김연자	김윤홍	김준태	김형애	노유리아	박경호	박연정	박춘길	서완석	신미경	엄익상	이강재	이신임	임정화	정광석	정찬순	조현구	천상국	하용식	황지호	
장성원	구계혁	김대천	김병주	김연주	김은옥	김준태	김형애	노인호	박경호	박영석	박한철	서종원	신상훈	오경희	이강진	이연주	임종악	정권희	정재삼	조현서	천상국	하임순	황현수
장성원	권은진	김대호	김병철	김영대	김희영	김지란	김혜영	노평우	박경희	박영석	박현옥	서중규	신상훈	오동진	이건영	이오성	임 진	정길호	정재영	조현서	천현식	하혜순	황형규
장성진	권인홍	김대희	김병철	김영란	김은정	김지순	김혜옥	라성현	박근호	박용순	박형곤	서현아	신영선	오동진	이광식	이용길	임지택	정길호	정재훈	조현준	최경희	한강석	
장용기	권인홍	김대희	김병철	김영란	김은희	김지연	김혜정	류현숙	박근호	박용순	박형곤	서현아	신우철	오미영	이광열	이원교	임효상	정대훈	정대균	조혜영	류현숙	한승희	
장용주	김가현	김대희	김병한	김영민	김 의	김진선	김혜진	류재형	박남욱	박우순	박형규	신준규	신창윤	오승택	이광운	이원희	장갑중	정대훈	정대주	조환익	최동훈	한원석	
장윤성	김가현	김택이	김봉석	김인성	김진숙	류중규	박대오	박은현	박형길	김준규	신준규	신창윤	오정희	이남주	이인옥	장대준	정동진	정형분	조환익	최동훈	한정우		
장익수	김가현	김동우	김봉주	김영숙	김일주	김진영	김오권	류한주	박명렬	박인준	박형재	설동계	신향진	오철곤	이덕순	이재철	장대홍	정도모	정형성	조환익	최병두	한준협	
장재현	김경만	김동채	김상수	김영진	김일주	김진화	김홍렬	명영숙	박명숙	박인준	박해준	설동계	신현출	옥은희	이동길	이정석	장대홍	정병필	정형자	주영진	최병수	한창진	
장재현	김경만	김동하	김상우	김영철	김장규	김진희	김홍순	문동석	박병재	박해준	박해준	성해석	심장섭	우상수	이득섭	이정연	장덕수	정봉현	정희선	주원석	최병은	한해광	
장혜경	김경옥	김동현	김상옥	김영호	김재건	김천미	김홍순	문병기	박병화	박해준	성해만	심재관	원유준	이득섭	이정주	장두익	정비취	정희선	주인택	최석현	한해광		
장홍순	김경완	김동호	김상일	김영훈	김정선	김천중	김희근	문복지	박병화	박정순	성해만	심재정	원정재	이문식	이정철	장미영	정선국	정홍호	주재민	최성준	한효은		
고병문	김경완	김동호	김상일	김오경	김정순	김천중	김희중	문승하	박복제	박정영	심현숙	성희영	심현숙	이문식	이정훈	장병기	정선국	정홍호	조환익	최영태	허영환		
고선호	김경호	김두희	김상일	김오곤	김정윤	김태성	김희중	문연희	박상규	박정민	배진주	성희영	안교주	유광수	이미선	이중균	장병기	정선희	정희택	주진희	최은지	홍상원	
고성환	김경화	김래봉	김석호	김옥규	김정일	김태성	김희중	문영홍	박상규	박정철	배태진	안상희	유규봉	이민중	이중균	장병기	정선권	제정화	주철희	최은희	홍상원		
고영근	김권기	김래봉	김선종	김옥자	김정일	김태희	김희경	문우열	박상준	박용숙	백부광	손우정	안상희	유기영	이병철	이중섭	장선심	정성권	제정화	주현정	최종기	홍석봉	
고일현	김근희	김만수	김성곤	김용기	김종기	김하늘	김희수	문은태	박상준	박중근	백선희	송선희	안정숙	유명희	이복기	이 준	장옥숙	정숙희	조경래	진광화	최종기	홍순갑	
고일현	김근제	김명근	김성곤	김유하	김종산	김하중	김희철	문은태	박상춘	박지영	백철현	송광호	양광성	윤광중	이복기	이춘호	장은중	정영민	조규만	진달래	최준수	홍재욱	
공영삼	김근주	김명선	김성국	김유안	김종석	김하태	나선주	문제화	박상표	박지영	백정우	송승영	이상윤	이행선	장종익	정영호	조대성	진성문	진수길	최준호	황광식		
공영삼	김기태	김명진	김성국	김유안	김종수	김한주	나선주	문제화	박상표	박지영	백정우	송은재	양미정	이상윤	이행선	장종익	정영호	조삼훈	진수길	최준호	황보연		
공영삼	김남규	김미란	김성인	김원균	김종태	김혜성	나승철	문정희	박서아	박찬숙	사공춘	송계옥	양세열	윤재삼	이선행	이현주	정용현	정은희	진수길	최진우	황상규		

〈 평생 회원 〉

성갑열, 강병석, 신현일, 김동우, 문이호, 이 완, 최병수, 최동현, 조현서, 조환익, 문갑태

〈 2012년 신규회원 〉

강경수, 강성원, 김경화, 김권기, 김남규, 김대호, 김미리, 김병주, 김상일, 김영대, 김영철  
김재건, 김정선, 김종현, 김지란, 김진화, 김현수, 김혜민, 김혜영, 김홍순, 김희경, 남정완  
노인호, 류한주, 문병기, 문연희, 문제화, 박기영, 박경희, 박상준, 박우순, 박찬숙, 반성원  
서선명, 서현식, 송광호, 신영선, 신창윤, 옥은희, 유기영, 유명희, 이종균, 이종섭, 이 훈  
정권희, 정영민, 정은숙, 정찬순, 정태주, 조예린, 조예원, 조현준, 주인택, 주재민, 진수길  
천현식, 최경희, 최동훈, 하임순, 하혜순, 한원석, 한효은, 황성준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 새로 가입해주신 회원님, 생명을 지키는 천사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월에 생일을 맞으신 회원님들 축하합니다~

김명진	하임순	박경호	박종숙	반성원
김미애	문영홍	정찬순	추인웅	박형채
김우진	김홍렬	윤재삼	장운성	박철호
김철인	심재관	정재영	조윤하	김영숙
김인중	김해성	한재성	김용하	김정숙
김형애	박병화	주현영	홍은희	김지영
문승기	이정석	김영일	최은희	김대박
박서아	박형길	박계하	김해한	박성기
박찬숙	김정일	임치점	유서정	김성화
서미화	주진희	김점정	서정희	
최훈양	미경	양미경	이선행	

11월 재정보고 (단위 : 원)

수입		지출			
회비	일반회비	6,057,500	인건비	상근활동비	4,040,000
	특별회비	600,000		상근여생비	450,000
				4대보조금	521,460
				퇴직금	1,500,000
	소계	6,657,500		소계	6,511,460
사업	회원사업 행사사업 재정사업 현안연대	1,550,000 211,690 - -	사업비	출재공통비	150,000
				세계공과비	7,330
				사무용품비	7,900
				통신구입비	113,060
				자료구입비	-
				차량유류비	100,000
차량유류비	100,000				
				회차량보합	-
				소계	478,290
			사업비	회차량보합	1,227,530
				회차량보합	1,382,800
				회차량보합	114,000
	소계	1,859,372		소계	2,724,330
잡수익	97,682	잡비(차익금상환)	2,000		
수입계	8,516,872	지출계	9,716,080		
전월이월금	10,641,441	차월이월금	9,415,233		

• 환경연합에 납부하신 회비는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장잔액 부족 등으로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시 다음 달에 자동합산출금됩니다.

12월 재정보고 (단위 : 원)

수입		지출			
회비	일반회비	6,074,000	인건비	상근활동비	4,040,000
	특별회비	3,463,000		상근여생비	2,020,000
				4대보조금	450,000
				퇴직금	267,400
	소계	9,537,000		소계	7,077,400
사업	회원사업 행사사업 재정사업 현안연대	20,719,600 19,287,551 - -	사업비	출재공통비	24,140
				세계공과비	-
				사무용품비	70,900
				통신구입비	-
				자료구입비	200,000
				차량유류비	26,075,905
차량유류비	243,000				
				회차량보합	-
				소계	26,613,945
			사업비	회차량보합	1,824,360
				회차량보합	18,949,840
				회차량보합	148,000
	소계	45,408,538		소계	20,922,200
잡수익	5,401,387	잡비(차익금상환)	2,000		
수입계	54,945,538	지출계	54,614,775		
전월이월금	9,415,233	차월이월금	9,745,996		

발행처 : 여수환경운동연합  
발행인 : 정희선, 정한수, 진옥  
발행일 : 2013년 1월 4일

통권 제186호

2013년 1월

물·맑은·동리



(555-802) 전남 여수시 신기동 20-9(2층) | 전화 (061) 682-0610 | 팩스 (061) 691-0680 | E-mail: yosu@kfem.or.kr | 홈페이지: http://yosu.kfem.or.kr

신년사

"우리 모두 20대 젊은이가 됩시다."

2013년,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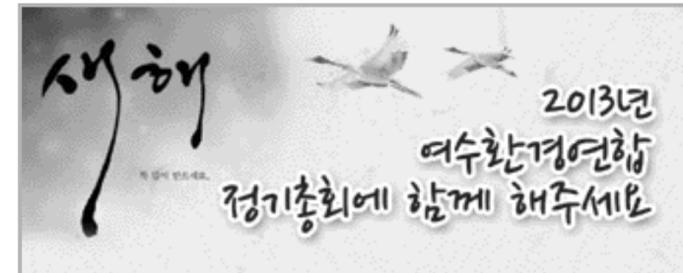
회원 여러분과 가족,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 보면 어느 해치고 순탄하기만 한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지난 한 해는 더욱 유난스러웠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여수 지역에서도 여수박람회 성공적 개최라는 기쁨과 함께 일 년 내내 비리와 오명으로 시민들은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저희 환경운동연합도 용기공원 문제, 화력발전소 문제, 크고 작은 산단 사고 등으로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 사람들은 고립감에 상처가 컸고, 사람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새해를 맞고도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가슴 속이 얼얼하고 서럽습니다. 하지만 감감한 어둠을 견디면 어느새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르곤 합니다. 봄이 오면 가지가 부러진 나무들은 폭풍의 아픔을 털고 새로운 가지와 잎사귀를 피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픈 기억을 지우기가 어렵기만 하는가 봅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그 호기심 많고, 설레고, 두렵고, 싱그럽던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들은 봄 마다 연노릇의 새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이 딱딱한 껍질로 달라붙어 생각과



정기총회 프로그램

1석4조(총회참석, 회원만남, 상품, 환경지킴이)기회

1. 일시 : 2013년 1월 26일(토)14:00~17:00
2. 장소 : 여수시노인복지관(여수시립 쌍봉도서관 옆)
3. 세부프로그램
  - 1) 정기총회 및 영화상영
    - 1-1) 14:00 ~ 15:00 정기총회(3층 대강당, 회원)
    - 1-2) 14:00 ~ 15:00 영화상영(1층 교육실, 회원자녀)
  - 2) 가족 게임, 체험, 환경운동회(15:00 ~ 17:00, 모두)
    - 새해 덕담나누기 - 친목도모(음식나눠먹기)
    - 가족운동회 - 베품시장
4. 기념품 : 수첩, 후원회원 상품, 컵 등
5. 문 의 : 사무국(061-682-0610)

회원 친목 행사 때 나눠줄 상품들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실 회원님은 연락바랍니다.(기부금 영수증발행)  
당일 베품시장 행사가 진행되니 평소 필요하지 않는 물품들을 가져오세요.



2012 소득공제 영수증 온라인 발급안내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님!

2012년 한 해도 변함없이 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올해부터는 더욱 간편하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수령방법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http://www.yesone.go.kr)  
환경운동연합 후원정보 페이지 이용 (1월 8일 이후 이용가능)  
(http://www.kfem.or.kr/receipt/receipt.html)  
여수환경운동연합 방문, 전화 접수 (061-682-0610)

-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실 때 기부금 영수증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개별적으로 회원들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호의 바다이야기**



2012년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지 벌써 5개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바닷속의 지금모습은 어떤 풍경일까?  
 http://cafe.daum.net/ykfm에서 만나보세요

**김혜진의 자연이야기**



뒷새의 대표적인 참새입니다. 뒷새는 먹이 환경에 적응 진화한 능력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만날 수 있지요! 추운 겨울 갈대의 씨앗도 영양 가득한 먹이입니다.

**푸름이 어린이생태탐사단 졸업식을 했습니다.**



3월 입교식을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째 주 토요일에 푸름이어린이생태탐사단을 진행했습니다. 2012년 처음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이 한 마 음한 뜻이 되어 졸업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푸름이들과 함께했던 올 1년은 푸름이들에게도 환경운동연합에도 의미있는 한 해가 됐을 것 입니다. 내년 푸름이 때는 서로 더 성장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데도 믿고 푸름이에 신청해주신 푸름이 부모님들과갈 따라와준 푸름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시선집중**

**2012년 기억해야할 4대강 8대 뉴스**

**- 물고기떼죽음, 녹조대란, 보 붕괴.. 내년에도 반복될 4대강 사건들**

2012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노후 원자력발전소 고장 사고 등 크고 작은 환경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4대강에는 물고기 떼죽음과 녹조, 보 붕괴 등 예견되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의 보가 존치되고 준설이 계속되는 한 이 사고는 내년에도 또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다가 올 2013년엔 다시 회복되는 4대강을 꿈꾸며,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4대강 8대 뉴스를 선정해보았습니다.

**1. 낙동강 녹조대란**



4대강사업 현장에서 준공의牌坊가 울리자마자 터진 낙동강 녹조대란 사태는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녹차라떼', '녹조곤죽'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녹조현상이 낙동강 전역으로 확대되어 4대강사업의 주목적 중 하나인 수질개선이란 말이 무색해졌다. 또한 녹조대란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보강하는 등 추가 수질개선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이미 연 관리비용 1조원이 예상되는 4대강사업에 우리 세금이 얼마나 더 투입되어야할지 모를 일이다.

**2. 4대강 보 누수, 세굴 및 파이핑 현상**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4대강 보의 누수 현상은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보강공사를 하면 괜찮다 했지만, 올 겨울 누수는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수공과 국토부에서는 '물비침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사실을 부인해보려 했지만, '물 빠짐 현상(?)'인지 누수를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수문을 통과한 강물의 강력한 힘에 인한 강바닥 세굴 현상 또한 심각해, 함안보에서는 무려 26미터짜리 협곡이 만들어졌다. 다른 모든 보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상주보와 칠곡보에서는 '물받이공'이라 불리는 보의 콘크리트바닥이 균열되고 주저앉는 대형사고가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발생했다. 이는 파이핑 현상에 의해 물받이공 아래 모래가 유실되면서 그 위의 콘크리트바닥이 주저앉게 된 것으로, 심화될 경우 보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낙동강 유역의 신종 홍수피해 속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벌인 4대강사업으로 '신종' 홍수피해가 속출했다. 장마 때 4대강 보로 물길이 막혀 낙동강 본류의 강물이 신속히 빠져지 않아 지천 강물이 역류해 지천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홍수피해를 입힌 것이다. 고령, 성주, 김천 등지에 이러한 신종 홍수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2.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오는 27일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27일 국립공원 지정을 의결한 계획이다. 면적은 기존 30.2km 보다 2.5배 넓어진 총 75.5km 로 늘어날 예정이다. 2010년말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한 후 2년여의 무등산보호단체 등의 지속적인 국립공원 승격운동의 노력의 결과이다. 국립공원 승격으로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와 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 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역사 문화적 가치 또한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새로운 국립공원 지정은 1988년 월출산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이후 24년 만이다.

**3. 고흥, 해남, 여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저지**

고흥과 해남은 2011년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문제로 지역내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핵발전소를 저지했다. 지역의 갈등과 혼란이 아물기도 전에 올해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시한번 지역공동체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고흥(포스코건설, 400만KW), 해남(MPC 500만KW), 여수(동부발전/한양, 200만KW)를 비롯해 전국 20여개 지역에 5대GW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의향서가 제출됐다. 이에 고흥, 해남, 여수 지역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300여일간의 천막농성과 대규모 집회, 1인시위, 삭발 등의 석탄화력발전소 저지활동을 전개했다. 지역민들의 지역의 녹색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한번 대형발전사업을 주민들이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4. 광주 수돗물 사고.. 응집제 과다 투여된채 가정에 공급**

지난 5월 광주 용연정수장 정수과정에서 강산성의 응집제가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과다투여된채 아무런 조치없이 만 하루동안 가정에 공급되는 초유의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문제의 수돗물이 광주천으로 흘러들어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기에 이르렀다. 수돗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관계당국은 작업자의 단순실수로 결론 내리고 있어 수돗물 관리와 사고대처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수돗물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처 시스템에 대한 정부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책임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5. 4대강사업에 의한 영산강 수질악화와 지하수위 상승 피해 확산**

4대강 영산강사업이 화려한(?) 준공식을 마쳤다. 그러나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 등



▲ 올해 태풍으로 합천보 상류이 낙동강 지천 회천의 농지 침수



▲ 4대강사업 전 못 생명의 보고였던 고야습지가 사막공원으로 변했다.

그리고 지천의 역행침식 현상으로 구미천에서는 강바닥에 깔려있던 송수관로가 드러나 자칫하면 제3차 단수사태가 발생할 뻔했고, 달성군에서는 역행침식으로 용호천이 침식되면서 5번 국도를 연결하는 교량인 사촌교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5. 금강과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사태**

지난 10월 말 금강과 낙동강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91년 폐놀사태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물고기떼죽음 현상이 왜 발생했을까? 4대강사업 후 보로 강물의 흐름이 막히고 평균 수심이 1m도 되지 않았던 강이 10m 깊이의 호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결국 강의 심각한 환경변화가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낙동강 물은 경상도민의 식수원이다. 물고기도 죽는 강물을 과연 인간이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



▲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6. 취수원 위 4대강 자전거도로 건설**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에 4대강 자전거길을 조성하면서 강정고령보를 통과하는 구간을 취수원 위로 설계했고, 이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받아 직접 시공함으로써, 대구 취수원 오염 우려 논란을 낳고 있다. 이곳은 원래 산지절벽 구간으로 길이 없던 곳이다. 그래서 사람도 차도 모두 우회길로 다니고 있다. 그런데 유독 자전거를 위해서 없는 길을 그



▲ 정면에 산지절벽을 따라 건설된 수성자전거도로, 가장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매곡취수장이고 가장 오른쪽 건물이 죽곡취수장이다.

물 흐름을 막는 보로 인한 유속 감소와 자연습지의 파괴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녹조가 발생하고, 밤낮으로 진행된 공사로 인해 보의 곳곳에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고, 세굴과 하상보호공의 유실, 본체의 침하, 역행침식 등의 부실이 확인이 확인되었다. 또한 13억톤의 용수확보가 명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내기철 농업용수로 공급되지 못하고,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돼 농지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지하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이후 보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갈등 또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6. 지리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부결**

MB정권의 자연보존지구내 시설물 설치허용 등 개발 규제완화에 편승해 촉발한 일부 지자체의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논쟁이 드디어 일단락됐다. 지난 6월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과 월출산권 6곳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시범지구 선정을 부결했다. 지역발전과 관광활성화가 국립공원을 파헤치는 명분이 되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생태복원과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차별화된 지역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정부는 개발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 전남 신재생에너지 사업 잇따라...**

전남도는 5GW풍력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200MW 육상풍력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포스코에너지 등과 체결했다. 2015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자해 서해안 일대에 국내 최대의 육상풍력발전단지지를 조성해 12만여 가구에 공급할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며, 풍력터빈 생산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5GW 풍력프로젝트는 2023년까지 23조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4GW, 육상풍력 1GW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학교 옥상을 이용한 햇빛에너지모아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에버텍(주)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까지 20개 학교에 우선 설치하고, 2015년까지 도내 국공립학교 458개교에 44MW를 설치하고 추후 도내 750여 전체 국공립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력과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8. 광양 불산제조공장 계획 백지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영국계 석유회사인 멕시켄과 2014년까지 3천억원규모로 광양 권

것도 취수구 바로 앞을 통과하도록 수중 자전거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취수장은 어떤 곳인가? 식수의 원수를 취수하는 곳으로 일반인들의 출입마저 엄격히 통제하면서 관리하는 곳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다. 그런데 대구시민의 생명 출파도 같은 취수장 위로, 누구나가 접근가능한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그것도 국민혈세 73억원을 투입해서, 죽곡취수장과 매곡취수장을 잇는 1.4킬로 구간의 자전거도로 때문에 대구시민들은 식수오염의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고는 아주 우연히, 부지불식간에 터진다. 수자원공사와 대구시는 부지불식간에 터진 지하철허참사의 비극과 폐놀 사태의 아픔을 벌써 잊었는가?

**7. 영주댐 공사로 망가지는 내성천**



4대강사업의 후속 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영주댐 건설로 영주시 이산면과 평은면의 511세대가 수몰되고, 400년 전통마을인 금강마을이 수장되며, 그 아래 무성마을과 회포동의 아름다움도 상쇄되는 기막힌 현실에 놓여 있다. 모래의 강 내성천의 진한 아름다움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영주댐은 4대강사업이 아니면 절대 필요 없는 공사로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고 있다. 즉, 낙동강으로 흘러보낼 유지용수 목적이 90% 이상인 이상한 댐이다. 공사비(8,300억 예산에서)만 해도 이미 1조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거기에 전국 최초로 수몰되는 중앙선 이철을 위해서 2,100억(현재 배 이상 증액)의 추가예산도 쓰고 있다.

**8. 용처도 불투명한 이상한 영양댐**

영양댐은 시작부터가 이상한 사업이다. 대개 댐이란 것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에 따라 물이 부족한 지역이나 홍수피해가 심한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양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도, 홍수피해가 심한 곳도 아니다.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양댐이 거론되는 것은 오직 건설업 출신의 영양군수의 의지 때문이라 한다. 처음 영양군수가 영양댐을 추진하려는 근거로 든 것이 휴타운 조성사업이었다 한다. 휴타운은 현재 영양군민이 18,000명인데 이곳에 10,000명의 입주라는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결국 이 사업은 철회되었다.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사라졌는데도 영양군수는 영양댐만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고 한다. 영양군이 그래서 새로운 용수공급지로 찾은 것이 구미5공단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니까 새로 찾은 것이 경산에 조성되는 신규공단이라 한다. 그러니까 영양에서부터 경산까지 100km 넘는 곳에 물을 대겠다는 것인데, 이런 비상식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이 영양댐이다.



▲ 영양댐이 들어설 예정인 장파천의 모습. 명경지수가 따로 없다

**광주·전남(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2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광주·전남 주요 환경현안을 되짚어보고,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의 길을 모색하고자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은 매년 연말 공동으로「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금의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장기적,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와 연계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사업과 고흥, 해남, 여수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논란이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은 생태계 파괴로 수질은 악화되고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고흥과 해남, 여수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논란은 지난해 핵발전소 논란에 연이어 지역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2012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로 ▶영광핵발전소 잦은 사고와 썩음, 위조부품 파문,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고흥, 해남, 여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저지 ▶광주 수돗물 사고 ▶영산강 수질악화와 지하수위 상승 피해 확산 ▶지리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부결 ▶전남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광양 불산제조공장 계획 백지화 ▶여수국가산단 업체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가뭄과 태풍 등 기후재난 피해 심화를 선정했다.

**1. 영광핵발전소 잦은 사고와 썩음, 위조부품 파문**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영광핵발전소는 지난 3월 비상발전기 정지사고 은폐를 시작으로 썩음부품에 이어 원자로 정지사고, 그리고 위조부품까지 잦은 사고와 비리로 얼룩졌다. 지난 10년간 1만여개의 썩음, 위조부품이 납품되고 사용되는 등 원전부품에 대한 검증체계는 무너지고, 안전이 최우선이야 할 핵발전소가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밝혀졌다. 가동을 중단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있는 영광5, 6호기뿐만 아니라, 영광 전체 호기에 품질검증서 위조부품과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이 사용됐음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영광3, 4호기의 제어방안내 관 등의 균열을 수년째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영광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은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핵산업계는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을 이유로 조기가동을 압박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부두 배후부지 13만㎡에 연간 13만5000t의 불산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조건의 MOA를 체결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주변 순천과 여수시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맥스켄과 항만공사를 압박했으며, 불산공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맥스켄이 투자를 철회함에 따라 11월 계획이 백지화됐다. 불산은 리튬이온배터리 전해물질로, 9월 경북 구미에서 누출사고로 23명의 사상자를 내고, 2천여명의 주민과 동식물 등에 피해를 냈었다. 구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9. 여수국가산단 업체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환경부가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조사에서 여수국가산단 내 호남석유화학, 휴켄스, 한국실리콘 등 3개 업체가 허가 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구리, 납, 비소, 벤젠, 페놀 등 총 25종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돼 법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다. 지자체에 위임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의 부실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드러낸 사건이다.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점검, 여수산단 전체 기업에 대한 점검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장 구비, 상시 관리감독체계 구축하고, 주변주민과 지역에 대한 건강검진과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10. 가뭄과 태풍 등 기후재난 피해 심화**

봄철 가뭄으로 광주, 나주, 담양, 장성호의 평균 저수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모내기철 농업용수 제한 공급 등으로 인해 모내기에 차질을 빚었다. 여름에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마가 광주전남지역을 휩쓸어 양식장 파괴, 과실수 낙과, 침수피해, 인명사고 등으로 인해 광주전남 피해액만도 실질 피해액이 1조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가뭄과 태풍, 홍수 등 기후변화,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재난의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